

트럼프 재집권,尹대통령에겐 기회일 수 있다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제목만 보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다. 대다수 독자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쓰나미를 몰고 온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칼럼을 쓰는 건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출장 때 '충격' 때문이다. 여러 계층의 미국인을 만나면서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감지했다.

미국인 기자 A씨는 "트럼프 집회에서 휴직하고 자원 봉사하는 이들을 많이 봤다. 현장에 가면 트럼프 열기가 뜨겁다"고 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2008년 미 대선을 취재할 때가 떠올랐다. 당시 휴학하고, 휴가원을 내고 오바마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적잖게 만났다. 미 각지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면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

미국인들은 한결같이 물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매일 북(北)버지니아에서 포도맥 강을 넘어 출근하는 공무원 B씨는 "집 임차료, 기름 값이 오르더니 밥도 올라 식당 가기가 두렵다"고 했다. 미국에 정착한 지 30년이 넘는 재

미교포는 "트럼프가 재판 중이고 그의 인격은 좋아하지 않지만, 경제를 생각하면 트럼프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집권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출장이었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넘게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의외로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주변의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해 왔다. 격식을 따지지 않으며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정계 아웃사이더 출신 두 대통령 의외로 잘 통하는 관계 될 수도 아베 총리 '브로맨스' 연구해 트럼프 승리 땀 韓 핵무장 이루라

대통령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가장 크다. 애창곡 '아메리칸 파이'를 백악관에서 부를 정도로 미국에 호감을 가진 윤 대통령과는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윤 대통령이 참고할 지도자도 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장(金裝) 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며 '브로맨스(남자들 간의 특별한 우정)'를 만들었다. 2019년 국민으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는 온종일 아베와 골프장, 스노 경기장, 일식

집을 다니며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극찬했다.

아베는 북한을 잘 모르는 트럼프를 짝 잡았다.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미·북 관계를 매우 조종하다시피 한 사실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등에 나와 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아베'에 비견되는 관계를 만들면, 주변미군 철수를 막는 것은 물론 트럼프와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비핵산 원리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한 민주당 정부에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1cm도 먹히지 않는다. 트럼프는 1차 임기 때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임기 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핵실험하지 않고 신속한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서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내치(內治)에서의 아쉬운 성과를 만회하게 된다. 최소한 일본처럼 언제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핵 지위'를 높여야 한다.

워싱턴 DC를 떠나기 전 지인으로 부터 "성공한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올해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지 않기를 바라나, 검은 비바람이 몰려 와도 댄이 튼튼하고 집 안 어둠을 것이 가득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안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었는가.

김준의 맛과 성 [171]

안산 대부도 바지락쌈장

경기 안산과 화성에 있는 염전으로 지난해 마지막 어촌 마을 답사를 다녀왔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소금 농사가 끝난 뒤 불쑥 찾아드는 나그네처럼, 불청객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천일염전의 문을 열었던 지역에 마지막 남은 염전을 둘러보는 기분은 날씨만큼이나 불편했다. 혈혈단신으로 남으로 내려온 실랑민들에게 갯벌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다. 그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서 생계를 잇고, 염전을 만들어 희망을 꿈꿨다.

대부도는 40km로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큰 섬으로 나직섬이라 불렀다. 황금산을 주봉으로 방어머리, 구봉도, 말부흥, 고랫부리, 불도, 선감도, 매주리섬 등이 나직의 발처럼 해안으로 뻗

어 있다. 그 갯벌에는 바지락, 동죽, 나지, 송어, 망둑어가 지천이었다. 방어머리에 바지락칼국수 집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우연은 아니다. 주민들은 갯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바지락을 이용해 걸쭉하게 찌개를 만들거나 썬장을 만들어 먹었다. 우렁쌈장을 흔하게 만날 수 있지만 바지락쌈장은 쉬이 접할 수 없다. 조리법은 우렁쌈장과 비슷하다. 들기름을 넣고 집된장을 넣어 볶은 후 양파, 버섯, 호박 등 채소를 잘게 썰어 다시 볶으면 된다. 이때 절대 물은 넣지 않는다. 된장의 강한 짠맛을 순하게 만들고 채소가 들어가 식감이 좋다. 원주민의 눈총을 받아가며, 된장 한 그릇 얻어 바지락을 비벼 넣어 쌈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삼겹살이나 채소쌈을 할 때나, 보리밥에 비벼 먹으면 반찬



이 필요 없다. 좋은 갯벌이 있어서 실랑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대부도 갯벌 중 상동마을과 고랫부리 연안 두 곳이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탐사도 습지이기도 하다. 이곳을 상징하는 생물은 노랑부리백로이며,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가을철이면 칠면조 군락이 아름답고,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바닷새들이 많이 찾는다. 안산시는 대부도 동주염전 옆에 염전 체험장과 전시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이재명 대표 피습, 반복되는 정치 테러 반드시 근절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거덕도 신궁방 부지 방문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다시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치료 지원을 지시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있었다. 지난 대선 기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 범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 선언을 지지하던 좌파 유투버로 "송 대표가 한미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유세장에서 50대 남성에게 커티 칼 피습을 당해 얼굴이 11cm나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유세 중 달걀 공격을 받았다. 우리 정치인은 아니지만 2015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종북 단체 소속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얼

굴과 목에 자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일도 있다.

이 대표를 공격한 사람의 범행 동기, 공모 가능성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야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지난 번 송 대표 습격 사건 때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총선 기간 중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선거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각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고 선거 기간 중 후보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을 되돌아보게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퍼져 있다. 때문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상대를 악마화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벌써 온갖 추측과 가짜 뉴스가 난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흥분 잃고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할 책무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번 일을 극단적 정치 문화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진보층 49%도 "물러나야" 운동권 퇴장이 민심의 요구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40대, 86세대가 속한 50대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진론은 나이와 이념을 뛰어넘은 민심의 요구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86세대 운동권이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주화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는 사이 운동권 간부 출신들은 민주화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출, 현 아권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니만 못하다. 운동권은 아권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최대 세력으로 무려 30년을 군림해오고 있다. 이제는 간판만 '민주화' 이고 행태는 철저한 '반민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갖은 반민주적 입법 폭주는 거의 대부분

이들 운동권이 저지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각종 괴담을 퍼뜨리는 것도 운동권이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도 상당수가 운동권이다. 온갖 음모론을 생산하고 비극을 정치화·정쟁화하는 전문가들도 운동권이다. 특별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타내 운동권 호구지책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엔 운동권의 부모와 자녀에게까지 온갖 혜택을 주려는 법을 만들고 일반 통과시켰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람들이 세계 최악의 반민주 폭압 집단인 북한 김씨 정권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노예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다. 30년 한국 정치의 '고인물'이 되면서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성 비위와 내로남불 사고들도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 저지른 것이었다. 그래도 운동권은 자기 편이면 감싸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무고한 사람을 때려 살해하고도 '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운동권이 공천 자격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반복되는 일도 있었다. 젊을 땐 노인을 비하하던 운동권들이 이제 60대가 되자 50대 장관을 '어린 x' '건방진 x' 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이 이런 운동권에 실망을 넘어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1년 만의 동해안 지진해일, 우리도 점점 필요하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최고 85cm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왔다. 1993년 7월 이후 31년 만이다. 별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도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컸지만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해안에서 발생해 바다 출렁거림이 약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지진해일은 다르다. 일본 서해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1시간 만에 우리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밀려들 수 있다. 일본 쓰시마섬이나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남해안에도 지진해일이 밀려들 수 있다. 실제로 1983년 5월 일본 혼슈 서쪽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 최고 2m 이상의 지진해일

이 밀어닥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1993년 7월에도 일본 홋카이도 오키시리섬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자 동해안으로 최고 2.76m 지진해일이 밀려들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4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진해일은 일본에서 우리 동해안에 도달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 대비만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 문자, 민방위 경보 방송, 주민과 선박 대피 방안, 원전 등 주요 기반 시설 안전 등 지진해일 대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훈련도 필요하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같은 재난은 최악의 가정 아래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기후 변화로 기상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재해 대책만 믿고 있을 수 없다. 31년 만의 지진해일을 계기로 비상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이낙연 분당, 참 잘했다... 이재명 일당과 결별만으로도

그들은 전체주의 프랑켄슈타인... 완전히 다른 '진보' 해보라 | 북·중·러 추종에서 제발 벗어나라

이낙연 신당, 어디로 가야 하나?

이낙연이 이재명과 갈라섰다. 1월 4일 진보 신당을 선언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상 모든 좌파 정당들은 치열한 내부 투쟁을 하곤 했다. 러시아 혁명기의 강경파(볼셰비키)와 온건파(멘셰비키)의 대립도 그랬다.

당시 혁명가들이 한 논쟁은 '빈곤한 후진 농업사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발전된 사회주의 산업국가로 변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허황된 종속이론 추종 한국 좌파

한국 좌파는 그와는 전혀 다른 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이미 빈곤한 후진 농업 국가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선진 자본주의 첨단 기술국이다. 한국 좌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순 거짓 주장을 퍼왔다.

- ★ 한국에서 자본주의를 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반(半) 식민지 신세를 면할 수 없다.
- ★ 고속도로도 하면 안 된다. 자동차 산업도 하면 안 된다. 포항제철도 하면 안 된다. 조선(造船) 사업도 하면 안 된다.
- ★ 한국 자본주의는 1980년대 후반에 폭삭 망할 것이다.
- 이른바 (종속이론)이란 거짓 예언이었다.
- 이낙연 전 대표와 그 동료들은 이 사이비 종교의 주문(呪文) 같은 가짜 마술(魔術)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진보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낙연 신당에 권고한다

[진보 신당 창당]은 발전적인 사태 진전이다. [이재명]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사기(邪氣)에 사로 잡힌 것 같은, 이 극도의 불쾌감과 혐오감. 이 병증을 일단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자아-알했다'는 소리부터 우선 외쳐주고 싶다.

- [진보신당은, ★ (북·중·러) 유라시아 전체주의 동맹에서 벗어나라.
- ★ [586 허위외식]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잘라 버려라.
- ★ [전체주의적 좌파]에서 [민주주의적 좌파]로 혁신하라.
- ★ 국가통제 경제, 퍼주기 포퓰리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기업에 대한 적대적임을 떨쳐버려라.
- ★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온건합리의 진보]로 나아가라.
- ★ 실용적준법(準法)적 노동정책, 선택과 집중의 복지, 적절한 젠더-청소년 정책, 적절한 기후변화 대책, 과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동참하라.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복수(複數) 정당 제도를 피차 인정하는 태두리 안에서 보수도, 진보도 해야 한다. 해나 아렌트와 조지 오웰이 지적한 광적인 일당 독재만은,

양쪽 모두가 배척해야 한다.

"신당 창당은 진영 정치를 위해 득권권을 누리겠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라고 한 이낙연 대표의 말은 그 점에서 공감할 만하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 尹林 화해는 자유진영 복원 신호탄... 탄핵가담 비좌파 기회주의 분쇄하라 [류근일 칼럼]
- 이재명이 한동훈 따라 할 수 없는 것... 불출마와 불체포특권 포기 [이양승 칼럼]
- 내년 총선은 2차 한국전쟁... '사이공 최후의 날' 막아야 한다 [류근일 칼럼]